

## 고마운 사람들

이진영

‘눈이 소복이 쌓여 있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으니 내 키가 커진 것만 같다.’

초등학교 2학년 시절, 내가 쓴 시의 일부이다. 당시 덜덜 떠는 손에 종이를 들고 발표를 하였고,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던 구절이라 기억에 남는다. 선생님의 칭찬에 신이 나 겨울에 눈이 오는 날은 내 키가 커지는 날이라 생각하곤 했다. 그렇게 눈을 밟으며 어른이 되는 상상을 하던 어린 시절이 나에게 있었다.

그 후로 눈을 얼마나 밟았을까, 어느새 나는 기다리던 어른이 되어 면접장에 앉아 있었다. 나도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면접관들을 앞에 두고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대답을 유창하게 해내리라 다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 오는 질문은 가족에 대한 질문뿐이었다. 그동안 준비해온 면접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면접을 끝나치고 집에 가는 길, 인천의 어느 한 역 벤치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어디선가 어린 꼬마 아이가 나타나 내 앞에 서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다. 아이에게 눈물을 보일 수 없어, 눈물을 닦고 나도 웃어주었다. 어린아이의 웃음이 얼마나 예쁘고 밝던지, 그 웃음 하나로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다. 순간 기분이 묘해졌다. ‘저 아이가 커서 나처럼 이렇게 울면 안 될 텐데.’, ‘앞으로 저 아이가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울지 말고 어른이 돼도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다짐과 함께, 나도 다시 웃었다.

그 후 또 다른 면접이 잡혔다. 이번 면접에서는 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면접관은 이력과 성적 등에서 나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 정말 냉철하였고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다. 갑자기 내 과거가 창피하게 느껴지기도, 앞으로 또 무엇을 해야 할까 막막한 순간이기도 했다.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집 앞에서 고등학생 때 자주 먹던 계란빵 냄새가 났다. 계란빵이나 먹자며 “계란빵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자, 저 멀리서 폐휴지를 정리하시던 할머니가 오셨다. 주인이 자리를 비웠는지 대신 계산을 해주시며, 나에게 거스름돈을 건네셨다. 웃으며 거스름돈을 건네는 할머니의 손톱에는 새까만 때가 껴 있었다. 갑자기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저렇게 고생하시면서도 웃으시는데, 넌 고작 몇 마디 조언에 이렇게 약해져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반성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면접을 본 후 내가 만난 꼬마 아이와 할머니. 내가 어린 시절 쓴 시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아직 눈을 많이 밟아보지 않은, 앞으로 밟을 날이 많은 아이일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는 지금까지 많은 눈을 밝아왔던 사람이리라. 아직 눈을 많이 밝아보지 않은 아이는 나에게 위로를 해주었고, 눈을 많이 밝아본 할머니는 내가 반성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또한 그들의 중간쯤에 있는 나는 내 과거와 미래를 보았다.

나의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면, 어린 시절 나는 전철역의 꼬마 아이처럼 밝게 웃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울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것 같다. 내가 사는 세상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항상 밝게 웃었다. 그래서 아마 나 역시도 누군가의 울음을 멈추게 했던 존재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어린 시절의 나를 생각하며, 어린 나에게 ‘나중에 커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의 노년은 어떨까? ‘그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반성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아마도 나 또한 많은 눈길을 걸었기에,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돼 있을 것이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와 같은 청년에게 ‘고작 몇 걸음 걸었다고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어른이 되기 위해 나를 채찍질해보곤 한다.

아이와 할머니, 그 중간에서 나는 26살의 어른으로 살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는 위로와 채찍질이 간절히 필요했던 시기였다. 그때 애교를 부려주는 아이가 내 앞에 서 주었고,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내밀어 주던 할머니의 손이 있었다. 그것이 당시의 나를 버티게 해준 고마운 사람들이다.

나 하나 살기도 버거운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 보니 누군가에게 힘드냐는 한 마디를 건네는 것 또한 조심스럽고, 힘든 시기인 듯하다. 이런 시간에 살고 있는 내가 두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었던 것은 아마 행운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누군가는 지나치게 감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감성적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경험이었다.

시간이 지난 지금,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당시 위로와 반성의 기회를 얻었던 인천의 한 지하철역과 우리 집 앞을 지나갈 때면 그들이 생각나곤 한다. 이 글을 빌어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꼬마 아이의 앞날에 눈이 소복이 쌓여 올바르게 항상 밝은 어른으로 커 나가길 바란다. 할머니가 걸어온 눈길을 나도 뒤따라 걸을 수 있도록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나 역시 지나온 길을 되돌아도 보고,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꿈같은 길이 어디인지 살펴보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